



방사능 평소의 130배 검출 한빛원전, 사흘간 숨졌다

1.11기가베크렐 외부 유출... 전문가들 “발표보다 많을 것”

원전측 “기준치 이내” 해명

영광 한빛원전 3호기의 증기발생기 고장으로 평소보다 130배 이상의 방사능이 원전내 복수기(열교환기)에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외부로 유출된 방사능 양도 연간 허용치의 0.0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원전 측은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모두 파악했으면서도 주민과 언론에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나 엄청난 위험을 안고 가동되는 원자력발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일보 21일자 1면 참조·관련기사 6면)

21일 한빛원전 내부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 3호기는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이 확인된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47분까지 총 11시간 17분간 '제논-133' 등 8가지의 핵종이 포함된 방사능 1.11기가베크렐을 외부 환경으로 유출했다. 원전 측은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

능량은 연간 허용치(원안위고시 제2013-49호)의 0.05% 수준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빛원전 3호기가 17일 새벽 2시9분에서야 자동 정지된 점과 자동정지 뒤에도 일정기간 유출 현상이 지속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유출은 원전 측이 집계한 양보다 많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외부 환경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능이 원전 밖으로 유출되는 동안 증기발생기, 터빈과 연결된 복수기 추출 가스에서는 평소 방사능 준위보다 130배가 많은 방사능(2.0E-07~2.6E-05)이 검출됐다.

원전 측은 특히 방사능 유출량과 고장 수습 과정에서 벗어났던 다른 실수를 사전에 모두 알고 있었지만 주민들에게는 폐하러다가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17일 오전 한빛원전 민간감시위원회의 요구로 긴급 개최된 회의에서 원전 측은 “극히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

량이다. 세관 파손 문제도 잘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측은 이미 세관이 파손된 증기발생기 대신 밀폐된 증기발생기를 수습한 엔지니어들의 실수를 확인했고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능 총량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를 민간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원전 측은 또 세관 파손으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확인했지만 10시간이 지난 같은 날 밤 11시에서야 민간감시위원회에 통보,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참담하다. 1차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축소·허위보고 하고, 고장을 수습하러다 또 다른 실수를 하고... 한빛원전이 발전소를 가동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한빛원전 3호기에 예전 벽돌로 바뀌면서 동네가 밝아졌다. 이웃들이 이번 기회에 동네를 깨끗하게 꾸며보라고 해 보기 좋았던 집 외부에 페인트칠을 했다”며 활짝 웃었다.

김 할머니 집 맞은편에서 건강식품점을 운영하는 김광훈(67)씨도 “어둠이 짙었던 동네가 정비되면서 주민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있다”면서 “자비로 집 외관을 리모델링하는 일이 유쾌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인의 변화는 동네의 흥물로 버티고 있던 고물상까지도 뒤로 물러나게 했다. 고물상 주인은 최근 도로와 가까운 고물상 부지 일부를 환원하고, 고물도 치우기로 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곳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구 지산유원지 입구 3거리도 광주시가 지난 9월 오래된 2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 정비와 함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뒤 동네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넘치고, 슬럼화됐던 곳이 주민 통행이 가장 빈번한 ‘동네의 변화가’로 거듭난 것이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이색 인테리어를 뽐내는 커피숍

광주시 환경개선에 주민들 ‘동네 바꾸기’ 화답

동명동·지산동의 ‘마법같은 변화’



21일 광주시 동구 동명로 농장다리의 경사완화 공사가 한창이다. 광주시가 공사비 5억원을 절감해 주변 인도 블록을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에 나서자 인근 주민들도 자발적인 마을가꾸기로 화답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진짜 도시재생의 모델로

김종래(80·광주시 동구 동명동) 할머니는 최근 삼짱돈 20만원을 들여 자신의 집 담장에 새 페인트칠을 했다. 동명동 큰 집가 주택에서 50년 넘게 거주해온 김 할머니는 집 내부를 고치면서, 외부에 페인트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김 할머니는 “40년 만에 집 앞 인도 바닥이 예전 벽돌로 바뀌면서 동네가 밝아졌다. 이웃들이 이번 기회에 동네를 깨끗하게 꾸며보라고 해 보기 좋았던 집 외부에 페인트칠을 했다”며 활짝 웃었다.

김 할머니 집 맞은편에서 건강식품점을 운영하는 김광훈(67)씨도 “어둠이 짙었던 동네가 정비되면서 주민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있다”면서 “자비로 집 외관을 리모델링하는 일이 유쾌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인의 변화는 동네의 흥물로 버티고 있던 고물상까지도 뒤로 물러나게 했다. 고물상 주인은 최근 도로와 가까운 고물상 부지 일부를 환원하고, 고물도 치우기로 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곳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구 지산유원지 입구 3거리도 광주시가 지난 9월 오래된 2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 정비와 함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뒤 동네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넘치고, 슬럼화됐던 곳이 주민 통행이 가장 빈번한 ‘동네의 변화가’로 거듭난 것이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이색 인테리어를 뽐내는 커피숍

■농장다리 공사비 아껴 소공원 조성 해주니...

주민들 노후주택 페인트 칠하고 리모델링·고물상 자진철거

■지산유원지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했더니...

이색 커피숍 등 상권 형성... 쓰레기 쌓인 슬럼가가 변화가로

이 들어서는 등 침체한 상권마저 활성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민 박재길(74·동구 지산동)씨는 “간혹 한 곳을 없앴을 뿐인데, 마술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까지 하면서 그 많은 쓰레기도 없어졌다”고 했다.

광주시와 동구청이 민선 6기 들어 도심 공사 과정에서 설계공법 변경 등으로 예산을 절감해 주변 마을 정비에 재투입하면서 ‘민(民)-관(官)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후하고 구도심이라는 이유로 방치됐던 도심마을에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대신 주변 환경을 조금 정비했더니, 주민들 사이에 ‘동네 사랑’ 열풍이 번지는 등 마술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도시재생’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앞세워 정부와 자치단체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변화로, 도시재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1일 광주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총 56억원을 들여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동구 동명로 농장다리(일명 동지교)의 경사 완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979년 만들어진 농장다리는 당시 경전선 철도의 통과 높이에 맞추기

위해 기존 도로보다 높게 설치되는 바람에 잦은 교통사고의 주범이 됐다.

시는 이번 농장다리 공사과정에서 기존 절단 후 인양 철거 방식을 압쇄공법(큰크리트·철근 동시 철거) 등으로 변경해 5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한 뒤 40여년간 방치됐던 주변 1.6km의 인도 포장을 교체하고 있다.

시는 특히 우천 시 빗물이 넘친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인도 블록도 다소 비싼 거친 돌 대신 사암을 사용하면서 일부 사용중인 빗물이 스며드는 투수(透水)블록으로 바꿨다.

또한 풀, 잡초 등의 억제를 위해 투수 블록 바닥에는 식생억제 시트를 깔아놓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시는 고물상에서 양보한 부지 120㎡에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농장다리 옆 승효상 감독의 광주 폴리 ‘푸른 길 문화센터’ 작품도 연분홍 철쭉 꽃밭을 추가해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행정기관의 노력을 직접 지켜본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순남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은 “민선 6기 시정방침에 따라 공사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시민의 뜻을 풀어 필요한 시설로 환원했는데, 시민의 만족도가 의외로 높다”고 말했다. /박진피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방사능 전담부서 설치...원전 수명 연장 없이 폐쇄 건의”

이낙연 지사 도정질의 답변

전남도가 안정행정국 내에 방사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통합진보당)은 21일 “최근 도정질의에서 원자력 관련 방사능 방재대책 부재를 지적하고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와 방사능 방재 조직 신설 등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이낙연 전남 지사가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수명기한이 오는 2025년으로, 시설 노후화에 의한 잦은 고장과 모조 부품 사적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며 집행부에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이와 함께 2015년 6월 시행예정인 원자력 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해 방사능 방재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5~8km에서 20~30km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답변에서 “원전 수명 연장 없이 수명기한에 의해 폐쇄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원전세가 방사능 방재 대책사업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정행정국 내 전담부서 설치와 대응 매뉴얼 작성,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등을 약속했다.

오 의원은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의 경우 원자력 안전실에 8명의 실무자가 방사능 방재사업을 맡고 있다”며 “시·도 상생과제로 한빛원전 안전 문제가 포함된 만큼 광주·전남이 주민안전을 위해 한빛원전에 대한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2015, 광주

170여개국 세계 대학생 올림픽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Global Premium Partner

Official Partner

Official Sponsor

기간 및 장소 : 2015. 7. 3 ~ 14(12일간), 광주 및 인근 사군 경기장 종목 및 규모 : 21개(정식13개/선택8개), 170개국 2만여명

정식종목

선택종목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수지